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56
2022.9.4.

오늘의 말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_ 누가복음 10:2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WCC의 이해 | 6-9 | 청년숲 여름수련회 | 12-13 | 구제부소식 |
| 3-4 | 총회주일 기획 | 10 | 너나들이 여름수련회 | 14 | 십자말씀이 |
| 5 | 유아유소년숲 공과 | 11 | 교사일기 / 사역소개 | 15 | 교회사용설명서(주차) |



무거운 돌 하나씩 듭시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로 가는 길에 강이 하나 있는데, 수심은 얕지만 물살이 무척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고 강을 건넵니다. 무거운 돌을 드는 것은 힘들지만, 그 돌의 무게로 인해 거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함께한다는 것은 무거운 돌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삶을 나누는 것이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친 물살의 강을 건너는데 꼭 필요한 돌입니다. 가을, 겨자씨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함글함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이해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가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주제로 열립니다. WCC에 대한 소개와 한국 교회의 WCC 참여에 대한 설명을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란 무엇인가?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헌장 제1조제1항에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이에 따라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문장을 하나씩 풀어 설명하면 1) WCC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들의 연합 2)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 3)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 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의 연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WCC 회원 교단

WCC에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110개국 350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약 5억 7천만 명으로 전 세계 개신교회의 80%를 차지하는데, 개인과 단체, 혹은 다른 종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교단으로는 정교회, 개혁신교, 루터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오순절교회 및 연합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

WCC 역대 총회 주제

WCC 총회의 주제들은 신론, 기독교론, 종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으로 이어져왔다. 1980년대까지는 기독교론이 강조되어 왔고, 1990년대 이후는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이 강조되어 왔다. 이는 WCC의 정의와 회원자격인 삼위일체와 기독교론을 고백하는 교단, 회원 교회들과 선교와 친교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진 교회를 잘 보여주는 주제이다.

차	년도	개최장소	주제	신학
1	1948	암스테르담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신론
2	1954	에번스톤	그리스도 - 세상의 소망	기독교론
3	1961	뉴델리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빛	기독교론
4	1968	웁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종말론
5	1975	나이로비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신다	기독교론
6	1983	밴쿠버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생명	기독교론
7	1991	캔버라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론
8	1998	하라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소망 중에 기뻐하자	삼위일체론
9	2006	포르투알레그레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삼위일체론
10	2013	부산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삼위일체론

에큐메니칼

1910년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세계선교사대회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에큐메니칼 운동이 태동되었다. 에큐메니칼이란 말은 헬라어 ‘오이쿠메네’에서 기원한 말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세상’(마 24:14) 그리고 ‘장차 올 세상’(히1:6)을 뜻한다. 이는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계된 성경적 용어이다. 이 용어는 교회의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교회는 여러 차례 공의회를 개최하여 삼위일체 신앙과 기독교론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단의 공격

으로부터 지켰다. 에큐메니칼은 교회 전통 속에서 교회의 공교회성, 성도의 교제, 사도적 신앙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WCC의 창립

1910년 세계선교사대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태동된 후 1921년에 국제선교협의회(IMC)가 창립되고 세계 선교를 위한 교파 간 연합 운동이 촉진되었다. 1925년에는 연합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기독교연합봉사운동(Life and Work)이 시작되었고, 1927년에는 신학적 연구를 위해 신앙과 직제 운동(Faith and Order)이 출범했다. 이러한 연합 운동들이 서로 협력하여 1948년에 WCC가 창립되었다.

WCC의 목적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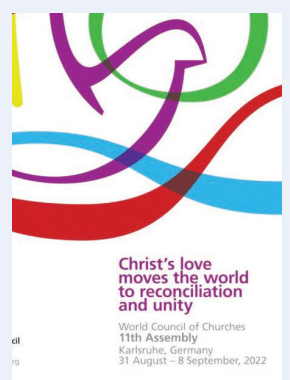
WCC 헌장 제3조에서 WCC의 목적과 기능을 “WCC는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힘쓰는 교회들로 구성된다. WCC는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국제선교협의회, 세계기독교교육협의회와 같은 세계운동의 과업을 통합한다”라고 설명한다.

제11차 WCC 총회

제11차 WCC 총회는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개최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나왔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랑과 화해, 일치가 부재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선교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총회의 공식 주제해설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이유를, “어두운 그늘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여 희망의 빛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신 사랑, 곧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사랑을 선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WCC

한국교회는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세계선교사대회에 10여 명의 선교사 대표를 파견한 이후 WCC를 통한 세계교회의 일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47년 대구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33회 총회에서 WCC 창립총회에 우리 교단 대표를 보내기로 결의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함으로써 WCC의 창립 회원교단이 되었다. 그러나 1957년에 교단 내부의 갈등이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비화되면서 WCC를 반대하는 쪽이 1959년에 승동교회에서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를 새로 조직했다. 우리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1960년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제44회 총회에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 WCC 탈퇴를 결의했으나, 1969년에 열린 제54회 총회에서 WCC복귀를 가결하고 이후 활발하게 WCC활동에 참여하며 세계 주요 기독교 교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교회의 무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그리고 대한성공회 등 WCC 회원 교회와 협력하여 2013년 제10차 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는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총회 이후 아시아에서 열린 두 번째 총회였다.



총회주일
장로교 총회 창립 110주년

한국 장로교 시대의 서막

올해는 한국 장로교 총회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오늘(9월 4일)은 107회기 총회주일입니다. 장로교 총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1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 게재된 총회 창립 110주년 기획 기사를 전제합니다.

함줄함울

한국 장로교 총회 창립 110주년을 맞았다. 110년 전, 제1회 총회 창립은 한국 장로교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굴복하지 않고 온몸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며 이뤄낸 성과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1회 총회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일제의 압제 아래 예속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로부터 한국교회로 중심이 이동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제1회 총회가 열렸던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며 발걸음을 그곳으로 돌렸다. 제1회 총회가 열리던 당시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암울함 그 자체였다. 2년 전인 1910년 경술국치로 불리는 한일합방이 이뤄졌고 그 다음 해인 1911년 조선총독부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총독 암살 모의로 날조한 '기독교인 105인 재판 사건'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일제의 핍박은 가혹했다.

역사적인 제1회 총회 개막

1912년 9월 1일, 한국 장로교회에 역사적인 아침이 밝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계 지도자들이 한 명 두 명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안여자성경학원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여든 인원은 전국 7개 노회에서 파송된 한국인 목사 52명과 선교사 44명, 장로 125명 등 총 221명에 이르렀다. 오전 10시 30분, 역사적인 조선야소교장로회 제1회 총회가 열려 가슴 벅찬 감격의 개회예배를 드렸다.

사실, 한 해 전인 1911년 9월 11일 대구 남문교회에서 열린 제5회 독노회에서 이듬해까지 총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에 따라 1년 뒤인 이날 역사적인 제1회 총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총회에 파송된 총대들은 경충 경상 함경 전라 황해 평안북 평안남노회 등 7개 노회였다.

총회에 앞서 개회예배는 독노회장 이눌서 선교사가 '장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마포삼열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성찬식을 거행했다. 개회예배를 마친 후, 정회를 하고 오후엔 5000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창 목사(평북 선천교회)의 설교로 기도회를 가졌다.

총회 이틀째인 9월 2일 오전 9시 평양서문밖장로회신학교에서 속회된 총회는 4일까지 회무가 진행됐다. 회무 첫날, 총회에선 레이놀즈 선교사의 강론과 박예현 목사의 기도 후, 총회가 창립된 취지를 설명하고 221명의 총회 총대를 천서했다. 이어 일본교회 대표의 인사와 축시가 낭독됐다. 절차위원회의 보고로 절차를 채택한 후, 미북장로교와 미남장로교, 영국 캐나다 호주장로회 등에서 총회 창립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길선주 목사가 축하에 대한 답례로 해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교회의 일원이 됐으며 연대하는 계기가 됐다.

언더우드,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

이어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선거가 시작됐다. 당시 선교사의 영향이 컸던 한국 장로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듯, 초대 총회장엔 한국인 목사가 아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출됐다. 총회 역사 기록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언더우드의 공로와 지도력의 결과이지만, 당시 '105인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지도력이 대거 투옥된 상황에서 교회와 총독부 사이의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총회장은 한국인 길선주 목사(평양), 서기와 부서기에 한석진 목사(서울)와 김필수 목사(군산)를 각각 선출했다. 회계엔 방위량 선교사와 부회계엔 김석창 목사(선천)를 각각 선출했다. 역사학자인 윤경로 교수는 임원선출을 두고 "지방별 7개 노회가 연합해 총회를 조직함으로 임원 선정에서도 지역 안배를 중요시했다"고 평가했다.

첫 총회인만큼, 총회에선 고퇴(사회봉)를 새로 만들어 사용했다. 총회 기록에 의하면, "이 고퇴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와 총회 산하 7개 노회를 상징하는 7가지 다른 나무조각들로 만들었고, 그 위에 세 개의 은고리를 둘렀다"고 언급했다. 고퇴에 대해 윤경로 교수는 "일곱 노회가 하나의 연합된 몸임을 상징적으로 표시해 일곱 가지 색깔의 나무에 삼위일체를 상징해서 세 띠를 둘렀으며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반석같은 교회를 생각해서 견고한 나무로 제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교사 파송 결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한국 장로교회는 제1회 총회를 통해 피선교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총회에선 전도주일을 지킬 것과 함께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제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선교사 선발 과정을 거쳐 제2회 총회에서 중국 산동성 행양현과 내양현에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등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1913년 11월에 이들을 파송하면서 한국교회가 독자적으로 해외선교 파송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독노회를 조직할 당시엔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했던 총회가 제1회 창립 총회를 조직하면서 해외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12신조와 규칙 채택

총회가 창립하면, 신조와 규칙을 제정해 신앙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조와 규칙을 채택한다. 제1회 창립 총회에선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준비했던 '조선장로교회신경'(12신조)과 '조선예수교장로회규칙'을 논의없이 채택했다. 총회 역사엔 12신조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12신조'는 1904년 인도에서 12개의 상이한 장로교회 및 개척파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해 인도 장로교회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신조로서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표준을 세우고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가 임직할 때 승인할 신조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서문을 제외한 거의 그대로 수용했는데 선교사들은 인도와 조선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장로회가 이 신경을 다 쓰기를 희망했고 그것을 통해 장로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연대를 갖기를 원했다"

제1회 총회에선 노회록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도 가졌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역사적인 제1회 총회는 4일 오후가 되면서 회무를 마치고 폐회 순서에 들어갔다. 총회장 언더우드는 제2회 총회를 경성에서 모이기로 청원한 후, 길선주 목사의 기도로 제1회 총회는 폐막됐다. 한편 제1회 총회 폐회 이후인 저녁 7시 30분 평양 장대현교회에선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선 펼쳤던 선교사역을 보고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특별 순서를 갖기도 했다.

김성진 기자 / 한국기독교공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해

주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 교회이며, 오늘(9월 4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기 총회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전국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을 맞아 총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총회 조직과 각 부처별 사역 설명과 함께 총회를 위한 기도를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1912년 9월 1일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개척교회와 에큐메니칼 전통에 서서 장로교 교리, 사도신경과 12 신조, 소요리 문답 및 신앙고백을 표준적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총회의 사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1) 교단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정립하고, 신학교육 및 교회교육 정책을 수립하며, 헌법, 규칙, 각종 예식을 제정 및 개정하고 국내외 선교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합니다.
- 2) 각 노회와 지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의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 3) 현대 사회 및 국가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안별로 해당 연합기관, 교단,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실천적으로 대응합니다.
- 4) 에큐메니칼 지평을 가지고 국내외 연합기관 및 타 교단과 협력합니다.
- 5) 산하 모든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지원합니다.

국내외 군·특수선교처

지역교회의 지속가능한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전도 및 개척선교 정책 개발, 건강한 목회를 위한 목회지원 정책 개발 및 목회개발사업(예배학교, 상담 학교, 기도학교, 교회력과 성서정과 등), 다양한 선교분야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선교현장의 정책개발 및 활성화(청소년, 직장 및 병원의료, 문화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 경찰, 교정, 소방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군, 경찰, 교정, 소방 교역자들의 특수사역 전문화 및 인적 자원 개발과 선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대상 교회의 자립을 지원하는 교회동반성장사업을 담당합니다.

해외다문화선교처

교단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현지에 교회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개척, 현지 지도자 양육, 상호협력과 참여'라는 통전적 선교와 '타문화권 선교, 한인디아스포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를 감당하는 통합선교를 지향하며, '연합과 협력'을 중시하는 선교전문기관으로서, 선교행정에 있어서 선교사의 개별적인 사역을 지양하고, 교단파송선교사들로 구성된 현지 선교회를 중심으로한 팀 사역을 추구하도록 안내하고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청지기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처

교육자원부와 총회 훈련원이 통합 운영되어 총회 교육의 모든 정책을 총괄 연구하고, 각종 교재와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신학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행정을 담당하고, 교단 목사고시와 교단의 지도력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해 위한 목사·장로계속교육 및 현장개발활성화교육 그리고 총회 전문대학 훈련사업, 평신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운영으로 교단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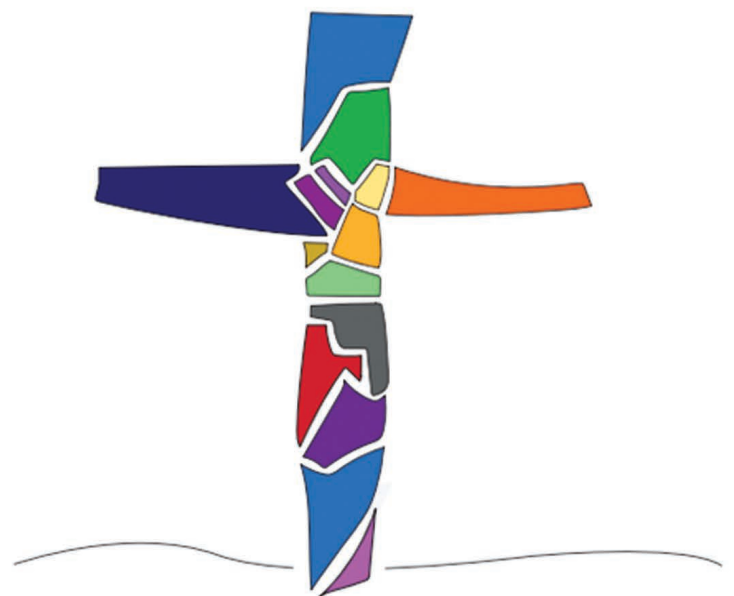
도농·사회처

사회현안에 대한 대응, 인권 및 평화, 환경보전, 국내외 재해 및 재난구호 및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수행 등의 사회선교 및 봉사를 실현하고, 나아가 도시 및 농어촌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총회 차원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선교에 대한 기반 마련 및 탈북민 지원, 민족의 동질감 회복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처

총무 본부의 제반 사무 행정, 인사, 재정(정책)을 관리하며, 총회 헌법과 총회 제 규정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에 관련된 업무, 재판 사건 처리,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 수호와 총회 산하 교인들의 보호에 관한 업무, 통계 관련 업무, 각 부원, 위원, 각 기관 대표 및 이사 공천 업무, 선거 관리 업무, 총회 준비 및 진행, 사료 보존, 정보통신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글함글



총회를 위한 기도

이런 총회가 되게하여 주소서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총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가 있는 총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있는 총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총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총회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사
생명이 있는 총회로 부흥하게 하소서

교회-가정연계
유아유소년숲 공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교회 유아숲과 유소년숲은 총회교육자원부에서 펴낸 ‘말씀으로 쑥쑥’과 ‘제자 플랫폼’교재를 사용합니다. 2022년 교재는 ‘말씀 편 : 성경이 이야기’가 주제이며 유아숲과 유소년숲은 같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신앙교육 위해 유아유소년숲 3주간의 공과내용을 연재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공과로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줄함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9월 첫째 주일은 호세아 1장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여 세 자녀를 얻는 사건을 통해,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과 그런 중에서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호1:2)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바람기가 많은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고멜을 통해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자녀인 ‘이스라엘(이שראל)’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로 갈멜산, 다불산, 길보아산을 연결하는 삼각형 모양의 평야 지대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평원(혹은 골짜기)은 아합왕의 왕궁과 가까이 있었고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왕상 21장). 이후 엘리야의 연언대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여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밭에 던지고, 이세벨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시신이 개들에게 먹히게 되었습니다(왕하 9:21~37). 이스라엘은 피의 사건이 가득했던 피의 골짜기(호1:5)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인 ‘로루하마’는 ‘공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함’에서 나온 단어로 로루하마는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커 하나님의 공홀이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히브리어 ‘암’은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9월 둘째 주일은 이사야 11장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웃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 앗수르 때문에 두려워하여 자신보다 힘이 센 나라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장치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사11:1)이라고 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하는 나라(사11:6)입니다. 그곳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충만하여 해 됨도 상함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연대기

9월 셋째 주일(9월 18일)에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기울어진 유다의 운명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중 예레미야 30장~33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나오는 그때는 출애굽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을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 중 1~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5~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새기고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줄함울

Re:live Together, 다시 새롭게

8월 7일과 14일에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아모스 9장 11절)'말씀을 주제성구로 하여 'Re:live Together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청년숲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 전체 소감

'RE:LIVE TOGETHER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8월 7일과 14일 주일에 열린 여름수련회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기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주제 말씀에서 나오는 '무너진 장막'에 의미를 생각하고 내 안에 무너지고 벌어진 틈을 찾아 그것을 다시 새롭게 메우는 결단을 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여름수련회를 처음 준비했을 때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수련회로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기대와 의욕을 가득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했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와 개인 미션, 온라인 소모임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수련회를 다시 준비하게 되어 너무도 분주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교역자님과 임원단, 여러 사역팀과 많은 청년들이 겸손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마음으로 수련회를 기획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부분은 8월 8일(월요일)부터 8월 12일(금요일)까지 총 5번의 개별 미션을 진행했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날의 미션인 '신앙'나눔을 통해 기존의 거자씨를 탈피하여 수련회 조로 모인 조원들과 말씀과 찬양, 메시지를 공유하며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 참으로 많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미션인 '공동체'시간에는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메신저나 전화로 마음을 전달하며 공동체를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미션인 '환경'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알게 되었고, 작은 불편함을 통해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를 마실 때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빨대 대신 유리 빨대를 이용하거나, 나무 칫솔을 사용하는 통해 작은 변화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과 변화를 쉽게 시작할 수 있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 미션인 '건강'을 통해 시간이 맞은 수련회 조원들과 클라이밍을 하며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을 갖았으며, 서로의 운동을 소개 받고 같이 배울 수 있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미션인 '선교'시간에는 아이가 처음으로 입는 배넛저고리를 직접 만들어 세상에서 하나뿐이며 가장 필요한 옷을 만들어 열심과 정성이 가득한 사랑을 실질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수련회도 아쉽게 온전한 대면 수련회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가득했던 수련회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경을 넘어선 변화와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이겨낸 열심을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고 무너진 장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단순히 이번 여름수련회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날의 추억으로 머무르지않았기를 소망합니다.

박호전 청년 / 청년숲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저의 기도를 공동체를 통해 응답해 주셨고,
이번 여름수련회 공동체 미션을 통해 저의 삶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가장 예쁘게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션 1 신앙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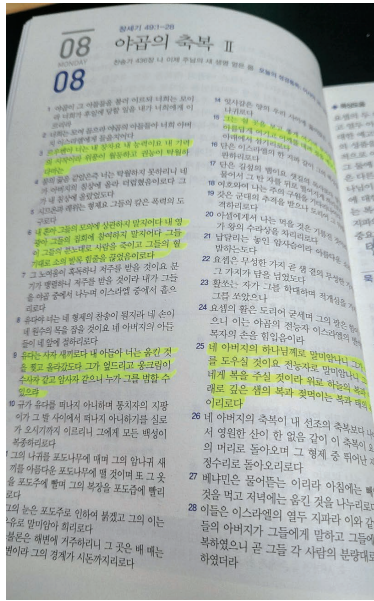
저는 첫날 큐티를 했습니다. 수련회 주제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수련회 주제를 단순 직역하면 [연합을 다시 체험하다] 라고 생각하며 큐티 하였습니다. 월요일 본문인 창세기 49장 1~28절, 야곱의 축복 속에서 저는 연합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모아 태어난 순서도 아니었고, 자신이 아끼는 순서도 아닌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 축복합니다. 주로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던 야곱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리브가가 야곱을 투입해 장자의 복을 빼앗았으나, 야곱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축복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에 의존하거나 내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코람데오.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는 형제자매와의 연합입니다.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빠지기 쉬울까? 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남과 비교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비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다시 잠잠히 읽어보면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겔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에는 평소의 행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이 나만의 것이라 민족 지파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행실이 나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구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들들을 축복하던 중간에 야곱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고민을 해볼 때, 저도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연합과 형제자매와의 연합을 곱씹어보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불드심이 없다면 이루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런 저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김장광 청년 / 청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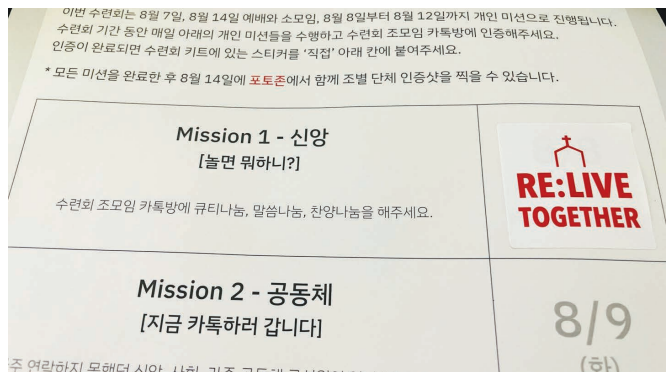
미션 2 공동체

저는 여름수련회 공동체 미션으로 이번 통일봉사단 비전트립에 동참해 주신 동역자분들에게 연락드려서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가는, 제 삶의 첫 비전트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두려움 또한 많았습니다.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국에서 만난 CCC맨들이 각자 대학교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행 스타일도 달랐기 때문에 열흘 동안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대학생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대학생의 통장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두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 또다시 바쁜 삶을 살다 보면 그때 받은 감동과 은혜를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름수련회 미션을 통해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비전트립 내내 제가 걱정했던 관계적인 두려움을 갉갉히 잊을 만큼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고, 이들과 평생 동역자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대학, 다른 전공,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따뜻하고 은혜로운 풍성한 비전트립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했고~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민족복음화”라는 하나의 이념을 가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인 어려움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제가 혼자 떠난 사역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신 동역자분들은 저의 지인분들도 계셨고, 제가 한 번도 뵈지 못한 분들도 계셨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와 세대도 다르고, 뵈지 못하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선교”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졌기에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던거죠~ 그리고 이런 귀한 감동과 은혜는 수련회를 진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나눌 수 있는거구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기도를 공동체를 통해 응답해 주셨고, 이번 여름수련회 공동체 미션을 통해 저의 삶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가장 예쁘게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예쁘게 빛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비전트립에 함께해 주신 선교적 공동체에, 그리고 지금 이순간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환희 청년 / 청년송



이번 수련회의 미션처럼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더라도 짧은 시간 노래를 들으며 걸거나,
주변 풍경을 보거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미션 3 환경

과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환경 보호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닥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물디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코카콜라의 북극곰 지키기 캠페인 광고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는 광고도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지켜쥬’라고 가수 추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플로깅을 하고, 비건 음식을 먹는 등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채널도 있을 정도로 저는 환경 보호 관련 콘텐츠들을 이미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 보니 내가 나서서 환경을 지켜야지 라는 생각보다 귀찮음이 더 커서 실천을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 엄청난 폭우와 홍수가 있었던 거 다들 아시죠? 무려 115년만에 역대 최고치의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폭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웠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찼던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 이번에 이렇게 폭우가 오게 된 게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기온이 상승되면서 극지성 폭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번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폭우가 쏟아지는 양극단의 기후 양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실가스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배출된다면 계절 주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래

이번 폭우와 수련회를 계기로 앞으로 정말 환경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이렇게 폭우랑 홍수로 피해를 입게 되는 날들이 더 많아지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En:fluencer 미션이 있었던 수요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환경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나 배달을 덜 시키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생각만큼 귀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미션이 저에게는 앞으로도 나부터 실천하고 우리가 실천해서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김지윤 청년 / 청년숲

미션 4 건강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세 단어로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체육교육과’, ‘축구’, ‘달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로 알 수 있듯이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를 준비하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동을 해 오면서 건강과 하나님을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파트의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곤란한 마음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몸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일을 예시로 들면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던 축구대회가 열리기 직전 다리를 다쳐 대회에 나가지 못한 적도 있었고, 대회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 결승전에서 같이 뛰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은 건강과 관련하여 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취미가 있는데요 축구하기, 사진찍기, 자전거 타기입니다. 특히 해가 질 때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조명이 들어온 한강 다리 사진을 찍거나, 한강변 벤치에 앉아 찬양을 듣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이번 수련회 미션을 보고 오랜만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적인 폭우로 아쉽게도 한강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와서 미션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제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허락해주셔서 예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뭉게구름이 가득한 하늘, 노을 지는 하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저인데 공원으로 산책을 나갈 때 해가 지고 있는 그림이 참 아름다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산책을 하며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바쁜 일상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미션처럼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더라도 짧은 시간 노래를 들으며 걸거나, 주변 풍경을 보거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500치는 육체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건강도 살피는 저와 주님의교회 청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윤 청년 / 청년숲

청년숲
여름수련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실천할 때,
나 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미션 5 선교

선교 미션은 바로, 배냇저고리 만들기였습니다. 제3세계 아기들에게 옷을 만들어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느질을 군대 훈련병 이후로 처음 해봐서,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분명히 3시간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다섯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미숙한 제 실력 때문에 이 옷을 입을 아기한테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사실 이 활동이 정말 선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선교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창한 생각 때문에 나와는 거리감 있게 느껴졌는데, 바느질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단,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물론 실 꿰고 묶을 때 막 답답할 때도 있지만, 어느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이 너무 귀엽죠. 그래서 바느질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 옷을 입을 아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무럭무럭 자랄 아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래오래 튼튼하게 입도록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모자뜨기 캠페인 같은 기부활동을 해보야겠다 생각만 하고, 막상 실천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계기삼아 도전해보니, 작은 것이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저의 마음도 변화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옷을 받을 아기를 생각하고, 그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가 변화와 실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실천할 때, 나 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청년 / 청년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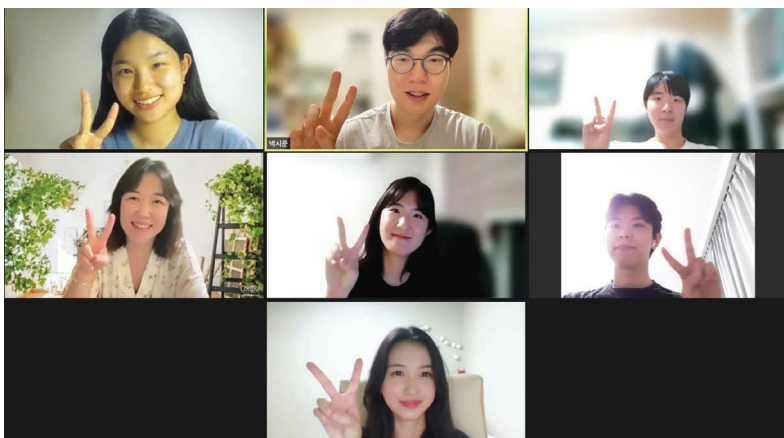
수련회를 마치며

그 어느 해보다 비가 많이 내린 22년도의 8월, 이 순간은 수련회의 다섯 가지 미션 (신앙, 공동체, 환경, 건강, 선교)과 함께 기억될 것 같다. 겨자씨의 일원으로, 사역팀의 일원으로 섬기던 내게 이번 수련회는 조장으로서 섬길 수 있던 기회의 시간이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한 이번 수련회 단순히 좋았다는 짧은 소감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주님의교회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한 조의 리더로서 느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의 실천이다. RE:LIVE TOGETHER, 수련회의 주제 속 부여된 다섯 가지 미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약간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진행할 수 있었다. 각각의 미션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성공했다는 생각보다, 미션과 수련회 주제 사이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임했다. 그 결과 각각의 미션을 진행함으로써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신앙, 공동체 미션을 진행하며 나의 작은 행동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천으로 옮겨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사함이다. 수련회에서 진행한 미션들을 비단 이 기간만이 아닌 이후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었다. 건강 미션을 수행하며, 처음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통근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통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 미션을 통해 시작한 다회용 컵 사용도 이제는 일상이 됐다. 이처럼 이번 미션들이 일회성으로 진행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음을 느끼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봉사참여의 필요성이다. 선교 미션을 통해 제3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배냇저고리를 제작하며, 이 행동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비록 계획만큼의 완벽한 결과물은 아니지만, 과정만으로도 가슴 벅찬 미션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다른 미션처럼 일상화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RE:LIVE TOGETHER,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며 우리는 견뎌고, 이제는 다시 함께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한 청년부 임원을 포함한 교역자분들, 사역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전과는 다른 시선과 자세로 수련회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

박경찬 청년 / 청년숲

통일선교부
너나들이 수련회

새로운 시작, 탈북청년 수련회

야외수련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년간 잃어버렸던 이름이다. 코로나 신규감염자가 일 14만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야외수련회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중단해야 하는지’가 무척 고민스러웠다. 탈북청년들의 믿음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선 꼭 필요한 행사였다. 올 5월에 공식예배로 승인되어 예배에 출석하는 탈북청년들의 숫자가 코로나 전에 비하여 1/3로 줄었지만 수년간의 섬김으로 믿음의 씨앗이 싹트는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비로 소수지만 그들을 통일과 선교의 역군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육신적 소통과 연대의 감동, 친교가 필요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2022년 8월 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의 당일 수련회를 강행하였다. 양평 펜션에서 예배로 시작하여 권사님들의 식사 준비, 집사님들의 바베큐 파티 준비, 통일과 선교의 진지한 토론, 자유시간, 행운권추첨의 즐거운 시간 등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선교, 복음 전도, 믿음의 성숙, 삶의 성공 이 모든 것은 ‘만남과 관계’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그 한 사람의 성장과 하나님 백성 됨은 오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즉 관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너나들이 공동체에서 탈북청년들을 섬기는 멘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탈북청년들과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긴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섬김”으로 정하였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사막의 모래에 물을 뿌리듯이 당장은 싹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땅속에서 움트는 생명의 씨앗을 본다.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 되고 북한선교의 디딤돌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이 모두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한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연 집사 / 너나들이부



교사일기
유년1부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에 꼭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년1부 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임미정집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뵈 때마다 참 고맙고 저도 언젠가는 교사 사역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12월 2일 제 아이들을 위한 기도로 첫 새벽예배를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저의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했다.”

그 소리에 새벽예배 첫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길 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예배 후 질문에 예전부터 생각만 해오던 교사 사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는 준비도 없이 어린아이들이니까 잘 돌보아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말씀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저에게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교사사역 일 년 후 코로나 시기가 되었고 저도 2년여의 온라인 예배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저에겐 양육클래스로 말씀을 배우며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주님께 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부모님들과 소통하고자 새벽예배 말씀을 카톡으로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고 신앙의 동역자임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함을, 원함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 아이들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자신이며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주일날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큰 지혜를 교회학교에서 배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에 꼭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시간으로 보면 52시간, 일 년 중 3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세상의 지식을 쌓고 배우는 것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 됨을 믿습니다.

저 또한 세상의 월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귀한 월급을 하나님께 받고 있답니다^^ 저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은 주님의교회 교사 사역에 동참하세요~ * 감사합니다 *

임미정 집사 / 유년1부

사역소개
협력교회선교부

국내선교위원회 협력교회선교부를 소개합니다

협력교회선교부에서는 주님의교회 창립 이후에 34년 동안 총 55분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나 기관들의 목양을 돕는 일을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각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6개의 교회(맑은세상 세린교회, 송우제일교회, 파주삼성교회, 늘푸른교회, 평강교회, 동해 하늘꿈교회)에 방문도 하고 기도와 후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8월 28일 주일에는 국내선교위원들이 이창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포천송우제일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1995년에 철도 침묵으로 지어진 무척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공단 주위에 있는 교회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창현 목사님께서서는 30여명의 성도들과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님들이 직접 재배를 한 식재료들로 7첩반상의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서 사랑의 친교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밝은 얼굴들로 주님의교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분들은 주님의교회가 친정교회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의 지역에 파송되어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세우시는 사역 위에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과 섬김으로 돕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협력교회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경임 권사 / 협력교회선교부



구제부 소식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로기회 제공 및 상위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들이 완전히 자립하는 그 날까지 구성원들 모두 성심을 다 하는 중입니다.

설 명절 프로그램

보호작업장의 이용인 중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한 부모 가정입니다. 명절에 찾아갈 가족이 없고, 외롭게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작업장이 명절 프로그램(민속놀이, 선물지급 등)을 개최하여 이용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게 합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월 4회 실시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악기 사용, 노래 부르기 등)으로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야고보서 1장 27절(“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2018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홀리랜드가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6길 34-1 1층

전화 : 070-8729-9567

대표 : 김한근 시설장 (010-9426-3393)

* 유튜브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 영상 / CBS 미션 현장속으로>

기도제목

1. 현재 자립하고 있는 무연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자립
2. 다양한 발달장애인 사업과 말씀 전도에 쓰임 받기 위한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모(母)법인 <사단법인 홀리랜드>의 질적 양적 성장
3. 하루 속히 임대료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취업을 원하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 고용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 확보
4. 섬기고 있는 13명의 발달장애인들의 믿음 성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
5. 지역 내 발달장애인 전용축구장 건립

시각장애인축구장 등은 있지만 발달장애인전용축구장은 없습니다. 축구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항상 장소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축구장을 사용한다 해도 2순위로 밀려 안정적인 모임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들이 현재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어 프로그램

청각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한 수어프로그램입니다. 수어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수단인 수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수어를 배워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고, 타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인식개선과 타 장애인들과의 교류 및 의사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축구사업에서 청각장애인축구팀과 의사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동아리

15여년 전부터 법인설립자(김중득 목사)의 지도 아래 발달장애인과 지역아동과의 축구게임을 통해 축구단을 운영하여 왔고, 장애인축구코치 등을 영입하여 서울시발달장애인체육대회 축구부문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의 자존감 고취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의 주요사업입니다.

직무훈련 및 보호 고용

상위 업체에 취업을 목표로 직무훈련과 통근과 예절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며, 취업 이전까지 근로기회와 급여를 제공하는 보호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의 활용과 후원업체발굴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흥종훈 베이커리(올림픽점)에서는 이용인 및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될 빵을 매주 2회 후원받고 있으며, 또한 송파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매주 1회 발달장애인축구단(F.C HOLYLAND)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93년10월 장애인 50명과 함께 창립예배를 드리며, 뒤쪽 강대상 의자에 앉은 분이 김한근 목사님

구제부 소식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장 27절)

1992년 집사로 재직시절 장애인보육원에 자원봉사활동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섬기라는 소명을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 그 메시지는 너무 강렬하였다.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업이자, 달란트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을 돌보면 한없는 기쁨이 솟아 나왔고, 항상 장애인들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도중 개척의 소명을 주셔서 교회개척을 하게 되었고, 고아 장애인 성도 50명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의욕 넘치는 시간들이었다.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이 있다고, 교회가 지하에 있다고 해서 잠깐 둘러보고 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현장에서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마음에 젊음과 열과 성의를 다 바쳐서 그들을 섬기는데 힘썼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이별하게 하셨다. 장애인 보육원 자리에 아파트 공사가 허가되면서, 보육원에 있던 고아 장애인들은 전국 각지의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그들을 따라서 교회도 옮겨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 그 중에 배종일이라는 친구가 “전도사님 저 꼭 데리러 올 거죠?”라고 마지막으로 얘기 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친구는 오지인 강원도 철원의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다. (종일은 20년 후 두손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을 보내고, 상실감에 젖어 무료한 목회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노숙자들을 한 명씩 보내주기 시작하셨다. 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섬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들까지 연단의 과정에 밀어 넣으셨다. 고아장애인들은 순수함에 끌려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으나, 노숙자들은 달랐다.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고, 그들의 방랑벽으로 인하여, 양육하여 성도로 만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매주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한 분씩 데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돈이나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면 어김없이 떠났다. 이러한 사역을 8년 동안 반복하였다. 이때가 가장 힘들었고,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목회였다. 지하에서 기도만 하면서 세상과 소통을 하지 못하였다.

노숙자 사역을 통한 거센 연단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숙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가셨다. 그 대신에 다시 장애인들을 한 명씩 보내 주셨다. 이번에는 어머니들과 함께 보내주셨다. 1기 때 고아 장애인 50명을 한꺼번에 보내주셨지만, 이번에는 한명씩 보내주셨다. 어머니들은 장애인들을 키우는 동안 온갖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았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이라고 생각하여, 성심을 다해 섬겼다. 예전 목회 초기 50명에게 쏟았던 그 정성과 기도를 이제부터는 보내주신 한 명 한 명에게 쏟았다.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났다. 그 장애인과 함께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진실한 마음과 기도는 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96년도 뿔뿔이 흩어졌던 초창기 장애인들도 한명씩 보내주셨다. “목사님 저 데리러 올 거죠?”라고 말했던 종일이를 근 20년 만에 소식을 알게 되었다. 20살 때 내가 섬겼으니 거의 40살 가까이 되었다. 철원에 있는 보육원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서 철저한 계획에 따라 군대처럼

생활하고 있었다.

이 때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소박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20살 때 철원으로 간 종일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육원에 있었고, 또 철원으로 가서 군대처럼 살다가 40살이 되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육원에서 보내는 것이다. 일반 고아들은 자신들이 답답하면 성인이 돼서 나와서 자신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지적장애인들은 평생 남이 해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야 한다. 철원으로 간 그 친구를 구출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소속 복지시설에서는 처음에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했다. 하지만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에 우리의 의견과 소명을 설명하고 이러한 친구가 있으니 우리가 돌보겠다고 통보 후 일을 추진하여, 결국 그 친구를 데려오게 되었다. 이러한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고, 이 친구들의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를 만들려는 노력과 간구 중에 현 나눔과 기쁨 소속 지부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을 2012년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막막하였다.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하는 노동시간에 비해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많은 고민하던 중 ‘보호작업장’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시설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재정이나 인지도가 탄탄한 법인을 대상으로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로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의 서경석 목사님께서 우리의 뜻을 인정하시고, 법인의 지부법인으로 인가를 해 주셨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목표는 사회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일반 사회로 편입시켜 일반인들과 접촉하면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사람이 없는 오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일부러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적이 많은 곳에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도 지나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물건도 사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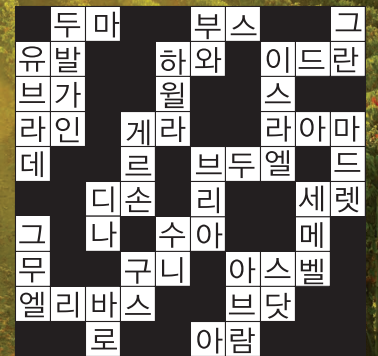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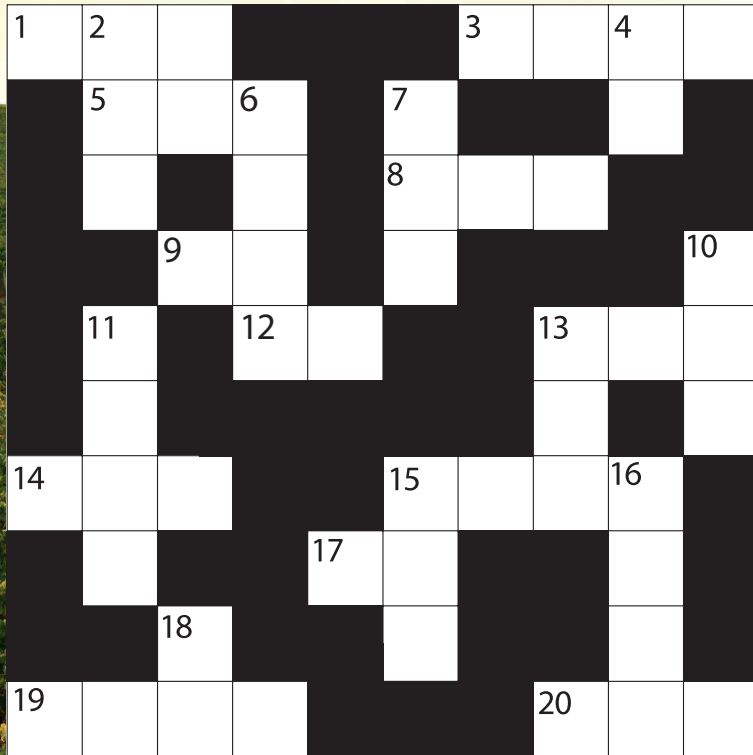
또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교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와 제휴하여 사회봉사명령자들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를 함으로써 그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참회하게 되며, 그 중 일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우리 사역을 성심껏 돕고 있는 중이다. 아직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찬란한 미래가 있기에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처음에 50명을 한꺼번에 보내주시고 데려가시더니 노숙자 8년으로 바닥까지 깨뜨리시고, 그 후에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이 되자 작업장을 세우게 하고 맡겨 주셨다. 처음부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소명을 지킬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한 풍파와 시련에도 소명이 흔들리지 않을 철저한 기반공사 끝에, 정말 귀중한 사역을 하나씩 맡겨주시는 것 같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사역에 힘쓰는 중이다.

김한근 목사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출애굽기편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십자말풀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호에는 출애굽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가로 힌트

1. 레위의 딸이요 모세의 어머니. 애굽 왕녀의 유모가 되어 모세를 신앙으로 키워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했다. (출 6:20)
3.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와 사자가 불꽃안에서 나타났던 나무. (출 3:2)
5.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드로' 라고도 한다. (출 2:18)
8.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이 떡으로 지내는 절기가 따로 있다. (출 12:8)
9.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서 발견한 히브리 아기.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뜻이다. (출 2:10)
12. 애굽의 왕을 두루 부르는 이름. (출 1:11)
13.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모세의 아내가 되어 두 아들을 낳았다. (출 2:21)
14.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언약한 땅.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다. (출 6:4)
15.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 축복으로 받은 이름. 이후 그 족속의 이름이 되었다. (출 1:7)
17.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는 이스라엘 아들 가운데 하나. (출 1:2)
19.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 (출 2:24)
20. 유다 지파 흠의 손자, 우리의 아들. 성막 치는 일을 감독했다. (출 31:2)

세로 힌트

2. 레위의 큰아들. 출애굽 때에 장막과 부속물을 관리했고, 갈릴리와 므낫세에서 13 성읍을 받았다. (출 6:16)
4. 아론의 맏아들. 아비후와 같이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고 벌을 받아 죽었다. "고상하다" 라는 뜻이다. (출 6:23)
6. 대제사장 아론의 처.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딸이고, 나손의 누이다. "하나님이 서약하심" 이라는 뜻이다. (출 6:23)
7. 시므온의 아들. 지파 족장 가운데 하나이다. (출 6:15)
10. 레위의 세째 아들. 성막의 목재 부분을 맡아 운반했다. (출 6:19)
11. 아론의 장인. "고귀한 친척"이라는 뜻이다. (출 6:23)
13. 애굽에 있던 히브리 산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했으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 행하지 않았다. (출 1:15)
15. 아론의 막내 아들. 회막 건축 때 회계를 맡았다. (출 6:23)
16. 아론과 엘리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출 28:1)
18.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 앓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의 아버지이다. 그의 후손은 성전에서 문지기과 음악을 맡았다. (출 6:21)

기독교학부모 문고 답하다

흔들리는 기독교학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기독교학부모의 고민을 듣고 기독교학부모 함성지기(기독교학부모 리더그룹)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문조사 시 초등 저학년을 키우는 한 엄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워야지 하면서도 늘 무너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기독교적 자녀양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학부모는 먼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기독교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 양육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자녀양육에 있어서 고민하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집 엄마를 만나면 나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부모인 나의 내면의 힘이 길러져야 넉넉하게 기독교학부모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려면 함께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을 찾고 이야기하다보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찾으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교회사용설명서④

주님의교회에 주차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에 주차하기에 앞서, 주님의교회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1996년 정신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998년에는 대강당을 지어 정신학원에 기증하고 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를 정신학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지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데에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학원으로 교회를 이전했을 때부터 주님의교회는 학원선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신여중과 정신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 특히 이전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은 주님의교회를 통해 교회를 배웁니다. 이 학생들이 바로 교회의 다음 세대이자, 나라의 미래라는 점에서, 이런 공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교회 구성원들은 이 때문지 않은 학생들 앞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1997년, 주님의교회와 정신여중고 이사회는 장차 있을지도 모를 오해와 분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신여중고 강당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대강당을 학교와 교회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 구역으로 구분했습니다. 1) 공동 사용 구역, 2) 학교 우선 사용 구역, 3) 교회 우선 사용 구역, 4) 학교 전용 사용 구역, 5) 교회 전용 사용 구역입니다. 당연히 다음과 같이 주차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주중 교내 주차가 금지됩니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교직원 여러분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주일에는 교회쪽 운동장 1/4만 사용합니다. 우천 시에는 운동장에 바퀴 자국이 패여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문제가 되므로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교회 교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운동장 1/4면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운동장에 바퀴 자국이 남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체육 활동을 하고 편하게 뛰어놀기에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일 주차 후 매주 월요일 새벽에 운동장 정지작업을 하고 있고, 또 100m 주로 보호를 위해서 주일에도 최소한의 공간은 주차하지 못하게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2번째 기둥부터 운동장 끝 농구대 2번째 골대까지 직선 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원 선교의 현장에서, 이 정도 공간이라도 주차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 주차를 하실 때에는 등록교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고 1층 사무국으로 오시면, 신청 즉시 주차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차증을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차량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와 정신학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의 수는 410면입니다. 되도록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차량 운행 속도는 30km/h 이하로 제한합니다.

위치	지정 주차	가능한 주차면 수	비고
교회 건물 주위	주일 노약자 구역	24면	우천시 주차 가능
	주일 장애인 구역	10면	
	주일 영유아 구역	10면	
	주일 일반 주차	66면	
학교 건물 주위	주일 일반 주차	50면	우천시 주차 불가
운동장	주일 일반 주차	250면	
합계		410면	

관리법과 주의사항

학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인의 안전과 효율적인 주차를 위해서 주일마다 15명 안팎의 주차안내부 봉사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헌신적으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켜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1. 주차시 반드시 차량을 등록하여 주시고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을 위해 교내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우회전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서 있게 주차할 때 20% 정도의 추가 주차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주차봉사부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고 서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담임목사도 주일에는 교회 건물 주변 주차장을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주차를 위해서 양보하고 운동장 끝에 주차하고 걸어오신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 차를 몰고 오셨을 때에도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주님의교회 품격이 느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위에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뭐든 새롭게 해보고 싶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도 잠시 쉬의 시간을 지나 다시 시작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여러 사역과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주님과함께 발행 3주년 기념 북콘서트 제1회

북콘서트

10/16 (주일)

주님과함께 QT 간증수기 공모전

‘주님과함께’로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간증을 공모합니다. 큐티를 통해 나의 일상에 살아오신 하나님,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 그 외 큐티를 통해 얻은 여러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주님과함께 큐티함에 실어서 그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응모 대상** 주님과함께로 큐티하는 모든 주님의교회 성도님
- 응모 마감** 2022.9.30(금)
- 원고 사항** A4 한 장 (글자 크기 10포인트, 행간 160% 기준)
- 접수 방법** 직접 원고를 출력 후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중 택 1
이메일 제목 : 4층 교육자실
이메일 : pc1198906261@gmail.com
- 시상** 원문상 (50만원 상품권) / 소망상 (30만원 상품권) / 사랑상 (10만원 상품권)
-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말씀나눔**
- 주님과함께 추천도서 판매**
- 정기 정기구독자, 큐티책 선교사역 특별시상, 큐티책 개인전시전**

일시 2022.10.16 (주일) 08:00~14:00
장소 1층 로비
문의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주님교회

꿈꾸는 3막

주	주제	내용
1주차	어는 예배 (21세기 새로운 노년상)	나아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주차	영성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3주차	비전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갑시다
4주차	지성	‘꿈꾸는 3막’을 통해서
5주차	꿈꾸는 신학	인생의 3막을 함께 계획하고 훈련합니다
6주차	건강	
7주차	관계	
8주차	영향력	
9주차	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년)	

노년교육 1단계 - 준비기

대 상 주님의교회 출석하는 65세 이상 성도
기간 10.6(목)~12.8(목)
시간 오전 10:00-12:00 / 대회의실(4층)
모집인원 24명(선착순)
문의 한시영 목사(010.8935.5048)

뷰티풀퍼어런팅센터

2022 하반기 교육일정

세움학당	9/17~11/5 (토) 오후 6:00	한창-온라인 병행 이문미 전도사(010-2376-6561)
마더와이즈	9/27~11/22 (화) 오전 10:00	한창-온라인 병행 김은혜 목사(010-9692-0820)
파더와이즈	9/27~11/15 (화) 오후 8:00	한창-온라인 병행 이상훈 목사(010-9808-4788)
생성론나루	9/28~11/30 (수) 오전 10:00	한창-온라인 병행 이문미 전도사(010-2376-6561)
가정예배학교	9/29~10/27 (목) 오후 8:00	온라인 강의 배운환 목사(010-3138-3262)
해피캠퍼스	10/4~11/22 (화) 오후 1:00	온라인 강의 김은혜 목사(010-4773-8186)
꿈꾸는 3막	10/6~11/24 (목) 오전 10:00	한창-온라인 병행 한시영 목사(010-8935-5048)
결혼예배학교	11/6~11/20 (주일) 오후 3:00	한창-온라인 병행 이지영 목사(010-4817-0109)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10/8, 11/12, 12/10 (토) 오전 5:20	한창-온라인 병행 김경민 전도사(010-7126-2722)

강좌신청 QR코드

FATHERWISE

파더와이즈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는 파더와이즈(가게로온 아버지안)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간 9.27(화) ~ 11.15 (화), 매주 화요일 오후 8:00 (8주)
장소 4층 대회의실 / ※ 필요시 온라인(ZOOM) 진행
대상 및 모집인원 주님의교회 모든 남자 성도 30명
참가회비 3만원(교재 및 교육자료)
신청방법 홈페이지 뷰티풀퍼어런팅센터 2022년 하반기 교육일정 '바른가정'에 링크된 구글신청서를 통해 신청

주차	일시	교육주제
개강식	9.27	오리엔테이션, 환영과 사랑의 인사
1주	10.4	지혜에 대한 탐구
2주	10.11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 세우기
3주	10.18	하나님과 남성의 관계 1.2 (신학/비전/순종하는 방법 배우기)
4주	10.25	남편과 아내의 관계 1.2 (남성의 마음, 아내 사랑하기)
5주	11.1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1.2 (경건한 후손 남기, 자녀를 위한 세 가지 선물)
6주	11.8	아버지와 세상과의 관계 1.2 (일에 대한 4가지 성경적 테스트, 삶이란 마음 갖기)
수료식	11.15	찬양과 경배, 조별 간증 나눔, 수료증, 기념촬영

문의 파더와이즈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관계의 어려움으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상담은 비밀유지가 됩니다

02) 416-5183
상담시간 : 오후 1~5시(화~금)

주님의교회 양육클래스

2022 가을학기

- 수강신청** 9.11(주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또는 강사에게 직접 문자로 신청
- 양육기간** 9.13(화) ~ 12.3(토)
- 문의** 유경수 목사 (010-9407-3709)

온라인 강좌 YouTube

구약특강(모세오경) 왕바울 목사 (010-3657-0421)
한국교회 이야기(경영, 충청편) 박주영 목사 (010-3347-0390)
10개 도시로 읽는 바울 서신 유경수 목사 (010-9407-3709)
신학입문 II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미션 퍼스펙티브스(PSP) 미션 파트너스 이진희 목사 (010-8882-5503)

온라인 강좌 zoom

(토/오전 10시) 그림으로 떠나는 미술수업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금/오전 10시) 중보기도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현장 강좌

(화/오전 10:30) 태초애(愛) II 박인규 목사 (010-8790-9690)
(금/오전 10:30) 성경 속 예배 이야기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금/오전 10:30) 성경을 꿈꾸는 사람들: 변화하는 선교 II 류경민 목사 (010-7195-4640)
(금/오후 2시) 성경통독 이대혁 목사 (010-9006-9129)
(토/오전 10시) 영성훈련 I: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 훈련 최대형 장로 (010-3814-1353)

교회일정

- 9/7(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4교구 주관)
9/14(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 겨자씨 2학기 개강
9/18(주일) 정기당회

알립니다

1. 주님과함께 QT 간증수기 공모전

‘주님과함께’로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간증을 공모합니다.

기간 : 9/30(금)까지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2. 2022년 하반기 양육클래스 수강신청 및 개강

수강신청 : 9/11(주일)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문자 신청(강사)

양육기간 : 9/13(화) - 12/3(토)

문의 : 유경수 목사(010.9407.3709)

* 개설 강좌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 및 안내지 참조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 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